

이 체포된 것에서도 파악이 된다.⁵⁵⁷

1947년 3월 미국 대통령이 트루만이 ‘트루만독트린’을 통해 대소봉쇄정책을 발표하면서 세계의 냉전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국제정세는 한반도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다. 더욱이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1947년 9월 17일 유엔으로 이관시켰다. 유엔은 1947년 11월 14일 총회에서 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하고 인구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결의하였다.

1948년 1월 8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남한에 들어왔으나 소련과 북한은 ‘미소 양군 철수와 자주적 임시정부 수립’을 요구하며 북한 입국을 거부하였다. 1948년 2월 26일 유엔소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 실시가 통과되었다. 선거일은 5월 10일로 결정되었다.

1947년 7월 한국민족대표자대회의 조직을 통해 이승만은 본격적인 남한단독정부 수립에 나섰다. 반면, 좌익은 단선단정반대투쟁을 전개하였는데, 1948년 ‘2.7구국투쟁’, 4·3항쟁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여러 정치세력은 1948년 4월 20일 남북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 모였다. 연석회의에 다녀온 김구 세력은 1948년 5월 5일 남조선단선반대전국위원회를 결성해 선거 거부 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미군정 사령관 하지에게 미군 철수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하지는 유엔 결의대로 정부 수립 뒤에 미군은 철수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는 예정대로 실시되었다. 제헌의회 선거에서 울진에서는 무소속의 김광준이 당선되었다.

제2절 한국전쟁

1.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울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한반도는 통일국민국가가 아닌 분단으로 귀결되었다. 제헌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각종 입법 활동에 주력하였다. 1948년 8월 5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기초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한 이래 8월 16일 반민족행위처벌법안이 상정되고, 9월 1일 통과되었다. 이에 정부는 9월 22일 법안을 공포하였다.

또 1949년 1월 농지개혁 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1950년 1월 상환액과 보상액을 동

557. 강원도사편찬위원회, 2013, 『강원도사』9-광복과 분단, 90쪽

일하게 150%로 정한 개정법률이 통과되었다. 농지개혁의 시행으로 지주의 몰락과 자작농의 확대가 가시화되었다. 그리고 1950년 5월 30일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진에서는 6명이 출마해 무소속의 김광준이 재선되었다.

한편, 한반도의 분단은 이념의 갈등을 강화시켰다. 대한민국 정부에 반대하는 좌익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의 좌익에 대한 진압도 강화되었다. 이러한 정치 상황에서 울진에서는 1947년부터 1949년까지 남로당 관련 검거자 수가 191명이며, 검거를 피한 뒤 ‘도피자 지방혼합부대’에서 활동한 인원이 70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⁵⁵⁸ ‘도피자 지방혼합부대’는 울진군 당책 이우정의 지휘 아래 부대원 70여 명이 1946년부터 1949년까지 몇 차례에 걸쳐 지서를 습격하고 우익인사를 암살하는 등의 테러 유격 활동을 벌였다.⁵⁵⁹ 이에 대해 울진경찰서 등은 대대적 토벌을 통해 빨치산을 사살 또는 처형하였다. 일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전쟁 직후 형무소 및 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해 희생당한 것으로 보인다.

1950년 9월 26일부터 1950년 12월 말까지 울진경찰서, 특무대[CIC], 국군 제3사단 소속 헌병대와 보충대 군인들은 부역 혐의로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의 수는 수복 작전 초기 국군에 의한 희생자 9명, 후정리 부돌골 약 40명, 신림 올시골에서 250여 명, 후퇴 시기 지서 경찰에 의한 희생자 20여 명을 포함해 총 320여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⁵⁶⁰

2. 한국전쟁과 울진

1) 전쟁 초기 울진전투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9일까지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웅진반도, 개성, 의정부, 춘천, 동해안지구 등 38선 전역에 걸쳐 전면전으로 발생했다. 1950년 6월 25일 삼척 임원항에 인민군 3,000명이 상륙하였다. 이 가운데 인민군 제5사단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나흘만인 1950년 6월 29일 울진을 점령했다. 1950년 7월 2일 국군 제3사단 23연대가 울진군 수복을 위해 투입되었지만, 왕피천 남쪽으로 후퇴하였다. 7월 5일에는 국군 제3사단 23연대가 울진경찰서 소속 경찰과 함께 평해 방면까지 후퇴하였다. 결국, 7월 1일에는 인민군 제5사단이 영해-영덕까지 진출하였다. 7월 11일에는 국군이 영덕군 병곡면으로 후퇴하였다. 이로써 울진군은 인민군의 완전한 점령지가 되었다.⁵⁶¹

그 뒤 울진군에는 인민군 점령정책에 따라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

558. 울진경찰서, 「사찰계 보고건」

559. 울진경찰서, 1951~1956, 『경찰서연혁』

560.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08상반기조사보고서』

561. 울진경찰서, 1956, 『경찰서연혁』

었으며, 우익인사에 대한 탄압, 인민군 초모사업으로서 의용군 모집 및 징용, 인민군 탄약 운반 도로보수 등의 전쟁 지원 사업 등이 실시되었다.

울진전투는 국군 제3사단 제23연대가 북한군 제766부대와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울진을 중심으로 치른 공방전이다.⁵⁶² 동해안의 요충지인 강릉이 북한군에게 피탈되고, 국군 제8사단이 대관령을 넘어 제천으로 후퇴하게 되면서, 강릉에서 울진에 이르는 약 92km의 지역은 무방비상태가 되었다. 이 지역에 해안도로를 따라 남하해 올 북한군을 저지할 임무를 띤 국군 제3사단 제23연대가 배치되었다.

6월 28일 부산에서 출발한 제23연대는 열차 편으로 대구를 경유하여, 29일 10시에 포항에 집결한 후 제1대대를 선발로 하여 울진으로 향했다. 7월 1일 제23연대는 울진읍내 공격을 시도하였다. 울진 북쪽 해안도로와 울진 시가지 확보에 주력하면서 남대천과 왕피천을 이용하여 제2·1·3대대 순으로 중심방어진지를 편성하여 북한군의 남하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측면에서 남하한 북한군의 공격으로 전투 손실이 커지자 제23연대는 방어진지 편성 3시간 만에 제2차 저지선인 평해로 철수하였다.

울진에 들어온 북한군은 제766부대의 선발대였다. 제766부대는 6월 25일 05시 삼척 남쪽 임원진 부근에 상륙했다. 6월 30일 15시 30분에 제766부대와 평해 온정리 부근에서 북상한 국군 제23연대 병력과 교전이 벌어졌다. 7월 1일 08시 무렵 제23연대 제2대대는 양정리-138고지간 고갯길을 중심으로 방어배치를 완료하였다. 하지만 울진군에 펼쳐진 주요 방어진지들이 피탈되자 제23연대는 울진 부근의 방어계획으로 작전을 급히 수정하였다.

이후 제23연대는 울진을 점령한 북한군이 야포 지원을 받으며 왕피천 남안으로 진출하자, 7월 2~3일 평해를 거쳐 영해로 철수하였다. 울진전투에서 국군 제23연대는 울진만이라도 확보하려는 최소한의 희망을 달성하지 못하고 점령한 지 3시간 만에 울진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후 제23연대는 전열을 재정비한 후 해군의 지원으로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병행하면서 울진에서 영해까지 60km의 공간에서 지연전을 수행하였다.

2) 평해-영해전투

영해 부근 전투는 국군 제3사단 제23연대와 해군포항경비부 육전대가 북한군유격부대와 7월 3일부터 7월 13일까지 평해—영해를 중심으로 치른 공방전이다. 지역 내의 교통망은 7번 도로[동해가도]가 해안선을 따라 양양에서 포항까지 연결되어 있고, 평해에서 영양으로 이어지는 88번 도로와 영덕에서 안동으로 이어지는 34번 도로가 동서를 연결하고 있다.

제23연대는 평해에 전방지휘소를 설치하고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는 한편, 일월산·백

562. 강원도사편찬위원회, 2013, 『강원도사』21-전란, 205~217쪽; 울진전투에 대해서는 강원도사의 울진전투를 전적으로 참고하였다.

암산·주왕산 등지에서 활동하는 유격대를 토벌하는 비정규전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해군포항경비부 소속의 육전대가 투입되어 구암산 지역의 게릴라 토벌 작전을 수행하였다.

7월 1일 울진전투에서 처음으로 정규전을 경험한 국군 제23연대는 상급부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가운데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병행하면서 울진에서부터 영해까지 60km의 공간에서 지연전을 수행하였다. 국군 제23연대는 사단의 주력이 한강방어선에 투입되고 7월 5일에 국군의 재편성 계획에 따라 제3사단이 해체되어 단독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울진에서부터 북한군을 저지함으로써 포항의 조기실함을 막는 데 기여하였다.

북한군 제5사단의 남하로 포항에 대한 위기가 점점 고조되자 7월 7일 미 극동군사령관이 이에 관한 관심을 표명하고 영덕 방어와 영일비행장 경계를 강조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유엔 해·공군의 지원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군 제23연대와 북한군 제5사단은 7월 13일경부터 쌍방이 내륙 지역의 금강—소백산맥선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임과 때를 같이하여 또다시 영해에서 격돌하게 되었다.

미 해군은 북한군 후방의 병참선을 차단하기 위해 영국 해군과 함께 7월 10일 02~03시에 삼척항에 대한 대규모 함포사격을 시작으로, 포격 범위를 북한 지역으로 확대해 나갔다. 그리고 지상군 지원의 일환으로 미·영 해군은 국군 제3사단의 함포 지원 요청에 따라 울진—영덕간 도로 차단과 북한군에 대한 공격을 수행하였다.

북한군 제5사단이 7월 8일 울진을 점령한 후 계속해서 남진하자 7월 12일 국군 제3사단은 함포 지원사격을 요청하였다. 7월 13일 미 포병장교 1명이 지상전 상황을 전하고, 함포사격의 표적을 지정하기 위해 주노함에 파견되었다. 이날 주노함과 미 구축함 드 해븐함이 지상군의 요청에 따라 울진의 북한 군병력, 목호의 철도 시설, 삼척항의 유류 탱크 등에 함포사격을 집중하였다.

이 함포사격은 지상군의 무선 통보에 의해 유도되었고, 그 효과가 매우 컸다. 더욱이 함재기들의 폭격은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실제로 북한군 제5사단은 주간 행군을 포기한 채 야간에만 이동해 진출 속도가 매우 느렸다. 이에 따라 북한군 제5사단이 울진을 점령한 것은 7월 8일이었으며, 이후 5일 이상이 걸려 7월 13일에 평해에 이르렀다. 국군이 새로운 방어계획에 따라 영덕—강구선으로 철수한 상황에서 북한군 제5사단은 7월 12일 08시경 평해에 들어왔다. 제5사단은 평해와 울진의 방어를 위해 1개 보병연대를 주둔시킨 후 영해로 남진하였다.

3) 인천상륙작전 이후 울진 수복

1950년 9월 15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을 계기로 한국전쟁의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고, 9월 29일 12시에 수도 서울 환도식이 개최되고, 이로써 3개월간 북한 점령의 수도 서울은 탈환되었다. 그 뒤 유엔군은 10월 7일 38선을 넘어 평양을 점령

한 뒤 계속 북진하여 압록강 초산까지 나아갔다. 낙동강방어선과 경인전선 사이에서 북한군은 패주를 거듭했다. 패주 과정에서 이탈된 북한군은 유격부대를 구성하여 유격전을 벌였다.

1950년 9월 UN군의 인천상륙작전 이후 1950년 9월 26일 국군 3사단이 울진에 도착해 평해와 울진 근남면 노음리 부근까지 진출했다. 국군 3사단은 왕피천을 대치선으로 해서 인민군 5단 27, 28대대 및 신병부대와 3일간 전투 끝에 9월 28일 울진을 수복하였다.⁵⁶³ 1950년 9월 29일에는 국군 3사단 26연대 3대대가 죽변리에 주둔하였다. 국군 제3사단 소속 보충대 1개 대대는 죽변지서에 본부를 두고 10월 한 달간 죽변에 주둔하였다. 헌병대는 울진군청 부근 전매소 자리에 주둔하여, 죽변, 근남면, 서면 부근에 헌병을 배치하였다.

울진경찰서 경찰들은 1950년 9월 28일 국군 제3사단과 함께 울진에 들어왔다. 그러나 10월 6일 퇴각하던 인민군 3개 주력부대가 기습 방화하여 울진경찰서 청사가 불탔다. 이에 10월 7일부터 삼척세무소 울진지서 청사를 임시청사로 하여 전시 치안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대해 울진경찰서 연혁에는 “1950년 10월 6일 인민군 패잔병 1,000여 명이 울진 시내에 재진입하여 10월 7일이 되어서야 경찰은 울진군의 치안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었다.”⁵⁶⁴고 기록되었다.

1950년 10월 하순 무렵부터 뜻하지 않은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선은 다시 38선 부근으로 내려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전쟁이 소련이나 북한의 예상과는 달리 장기전의 양상을 띠자 소련은 유엔을 통해서 휴전을 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951년 7월에 개성(開城)에서 처음으로 휴전회담이 개최되었고, 2년 만에 당시의 전선을 휴전선으로 하는 휴전이 1953년 7월 27일 성립되었다. 이때 한국 정부는 휴전에 극력 반대하였지만 결국은 미국으로부터 한미상호안전보장조약의 체결과 장기간의 경제원조 및 한국군의 증강 등을 약속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4) 민간인 희생 사건

(1) 울진 부역혐의 희생 사건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이후 울진에서는 인민군 점령 때 인민군에게 부역했다는 혐의로 군민이 희생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1950년 9월 26일부터 1950년 12월 말까지 울진읍 신림 올시골, 죽변면 후정리 부들골 등 여러 곳에서 울진경찰서, 특무대[CIC], 국군 제3사단 소속 헌병대와 보충대 등 군경이 인민군 부역 혐의 울진군민 수백 명을 적법한 절차 없이 총살 또는 생매장의 방법으로 집단 살해한 사건이다.

563. 국방부, 1971, 『한국전쟁사』4, 군사편찬연구소, 57~86쪽

564. 울진경찰서, 1956, 앞 책

1950년 9월 26일 국군 제3사단 병력이 울진에 들어온 이래 특무대, 헌병대 등 군과 울진 경찰서 경찰들은 울진의 치안을 맡으면서 부역혐의자들을 검거하였다. 검거 이후 부역혐의의 울진군민들은 집단 살해되는 희생을 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1950년 10월 15일 중국 공산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하면서 전세가 다시 역전되자 울진경찰서의 온정지서, 하당지서, 기성지서 등의 경찰들이 11월 하순부터 12월 소순 사이 황보리 문둥이골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부역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주민들을 집단 살해하였다.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950년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 국군 제3사단 소속 군인들과 특무대[CIC] 대원들이 수복 작전 초기 작전 지역인 울진군 근남면 노음면과 기성면 등지에서 주민들을 부역혐의자라는 이유로 총살하였다.

둘째, 후정리 부들골[현 죽변면 후정1리]사건으로 1950년 10월 20일 헌병대, 특무대, 경찰 등 군경에 의해 부역혐의자 40여 명이 총살 또는 생매장의 희생을 당했다. 당시 군경은 이장과 우익단체가 제공한 명단을 근거로 울진군내 여러 면에서 걸쳐 부역혐의자를 직접 검거해 연행하였다. 셋째, 1950년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울진경찰서는 각 지서에서 인계받은 수백 명의 부역혐의자들을 울진읍 신림 읍시골에서 집단 살해하였다.

넷째, 1950년 11월 26일 울진경찰서의 온정지서 소속 경찰은 일부 주민을 부역혐의자로 지목해 울진경찰서로 이송시킨다고 밝힌 뒤 황보리 문둥이골에서 집단 살해하였다. 다섯째, 1950년 늦은 가을 울진경찰서 하당지서 소속 경찰들이 사계리 나그네골에서 주민 일부를 부역혐의로 집단 살해하였다.

그 밖에도 울진 경찰에 의한 후포 바닷가 수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군 수복 후 산으로 피했다가 자수한 부역 혐의자들, 기성면 출신 부역혐의자 등은 울진 경찰에 의해 후포항에서 배에 실려 수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국군 제3사단 및 보충대 병력에 의해 죽변 4기 바닷가 부근 후릿개 희생 사건, 덕천 백사장, 서면 하원리 백골, 연지리 현내항 입구 골짜기, 서면 쌍전리 계곡 등에서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 사건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진실과 화해를 위한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2007년 8월부터 11월까지 서면조사,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월 12일까지 현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서면조사를 통해 울진경찰서에 『경찰서 연혁』, 『부역자 명부(정보계)』(1962), 『부역자 명부(보안과)』, 『신원기록편람』 등의 기록이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자료 수집 및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부역자 희생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 연혁』에는 “10만 군민 중에서 부역자가 총 2,215명이고, 성분이 악질인 도피자는 545명이며, 시국 불인식자 259명을 소치하고, 1,411명을 훈계 석방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다음 『부역자 명부(정보계)』에는 관내 지서별·일반 및 부역 공무원별 성명, 연령, 본적주소, 현주소, 한국전쟁 당시 인민위원회 등 직책을 담은 부서, 체포 여부[검거, 자수, 월북도피,

행방불명, 송치·처단, 송치 등], 처벌내용[훈계 방면, 처단, 도치 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다음 『부역자 명부(보안과)』는 연인원 2,773명의 명단을 가나다순대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원적·본적·주소, 특이사항, 비고 등의 항목으로 기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신원기록편람』에는 현존자 5명, 현시찰자 33명, 부재자 258명, 처형자 8명, 간첩 3명, 남북귀환자 28명, 남북미귀환자 12명, 정보사범 25명 등 672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었다.

다음 진실과화해위원회의 현지 참고인조사는 울진경찰서가 작성한 『부역자 명부』(1962)에 적힌 4,56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되, 『부역자 명부』에 ‘처단’, ‘처형’, ‘송치’ 등의 조치가 기재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에 따라 울진 8개 읍면 133개 마을에 대한 현지 조사가 진행되었다. 울진읍 27개 마을 중 20개, 근남면 20개 마을 중 20개, 원남면[현 매화면] 16개 마을 중 4개, 기성면 24개 마을 중 24개, 북면 29개 마을 전부, 온정면 22개 마을 중 9개, 서면[현 금강송면] 12개 마을 전부, 죽변면 15개 마을 전부 등이었다.

이 현지 조사를 통해 진실화해위원회는 희생자 205명과 희생 추정자 51명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확인된 희생자 전체 256명 중에는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도 2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희생자들은 울진경찰서가 작성한 『부역자 명부』에서 인민군 점령기에 인민위원회 등 공적인 기구나 단체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역했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현지 참고인 조사에서 밝힌 참고인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당시 민간인 희생에 대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다.

○ 1950년 10월 20일, 죽변에 주둔한 정보부대 및 전투부대 군인들이 죽변지서에 구금된 부역혐의자들과 울진경찰서 유치장에서 인계받은 부역혐의자들을 조사한 뒤, 그 가운데 약 40명을 포승줄에 묶어 후정리 부들골[현 동아아파트 사택 뒤]로 끌고 가 구덩이를 파고 집단 살해하였다. 이 중 작은 구덩이에 묻힌 장○규 등 주민 7명은 생매장되었다.

○ 1950년 11월 말에서 12월 사이 전선이 다시 불안해지자 지서별로 부역혐의자 처형이 진행되었다. 1950년 11월 26일, 온정지서 경찰은 유치장에 구금된 12명의 부역혐의자를 울진경찰서로 이송한다는 이유를 들어 포승줄로 묶어 끌고 가던 중 기성면 황보리 문둥이골에서 집단 살해하였다.

○ 1950년 늦가을 울진경찰서 하당지서 경찰은 지서에 재차 연행되었거나 검거되어 있던 부역혐의자 중 7~8명을 한밤 중에 호명하여 북면 사계리 나그네골로 끌고 가 살

해하였다. 기성지서 경찰은 지서에 자수하러 오던 중 검거된 최산리 안○위, 안○원을 포함한 부역혐의자들을 후포항에서 배에 실어 바다에 수장하였다.

울진 부역혐의자 희생 사건의 가해자인 경찰 측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도 당시 민간인 희생에 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 참고인들은 자신들이 부역혐의자 검거, 연행, 유치장 경비 업무 등은 수행했으나 직접적인 가해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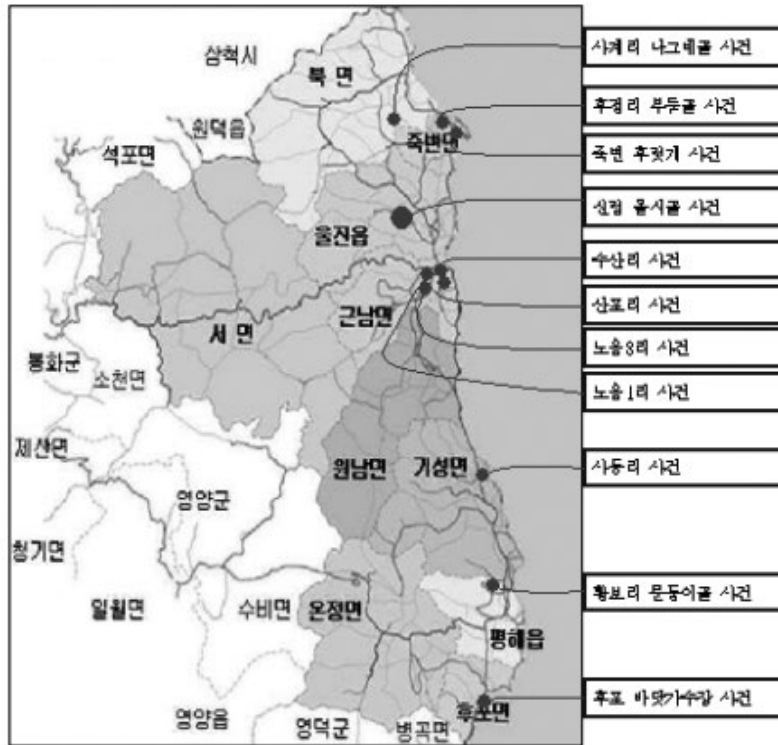
○ 죽변항 주둔 보충대 사령부가 있던 죽변국민학교에 연행된 100여 명의 부역혐의자들은 죽변지서 사찰계 형사 홍○○에 의해 조사·분류되었고, 이 중 일부는 석방되었다.

○ 수복 직후 울진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부역혐의자 중 일부를 헌병대 및 CIC가 가끔씩 와서 인계해 갔다.

○ 신림 올시골 사건은 울진경찰서 주도로 수행하였지만, 초기에는 부역혐의자 총살 및 구덩이를 파는 일 등 일부 과정에 국군이 개입하였다.

○ 1950년 10월경 죽변에 주둔한 보충대 군인들이 삼척 부근에서 체포한 인민군 패잔병과 부역혐의자 20~30명을 죽변지서 맞은편 의용소방대 창고에 구금, 조사한 후 죽변 후릿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살하였다.

울진 부역혐의자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과화해위원회에서는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의 지원을 통해 유족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에 힘쓸 것과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문서기록의 정정, 공식 역사기록에 진실규명된 내용의 등재, 그리고 군인과 경찰의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하였다.



<그림 72> 한국전쟁 중 울진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지도

출처 : 『진실과화해위원회 보고서』

(2) 울진 지역 미군 관련 희생 사건

한국전쟁 중인 1950년 7월과 9월에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와 울진읍 읍내리 주민들이 미군 함포사격에 의해 희생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울진 앞바다에서는 미 해군 한국지원전대 휘하 주노우함[Juneau], 블랙스완함[Black Swan], 자마이카함[Jamaica], 헬레나함[Helena], 드헤이븐함[De Haven] 등이 울진을 점령하고 있던 인민군을 격퇴시키기 위해 함포 사격 등 해상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미 해군이 울진 앞바다에서 해상작전을 수행할 때 전쟁 상황을 살펴보자. 1950년 7월 1일 국군 제3사단과 울진경찰서가 평해 방면까지 후퇴한 상황에서 7월 12일 인민군 제5사단이 영해-영덕선까지 진출하자 국군 제3사단에서 긴급히 미 해군에 함포사격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특히, 1950년 9월 24일부터 9월 27일 사이 울진 근해에서 작전을 수행한 순양함은 헬레나함과 드헤이븐함 등이었다. 먼저, 헬레나함의 전투 일지를 보면, 1950년 9월 24일 헬레나함은 국군 제3사단을 지원하는 해상작전을 수행하였다. 9월 25일과 26일 양일간 포항 청하면 일대에서 순찰 및 함포사격 작전을 수행한 뒤 9월 27일 근접함포 지원 작전을 수행하였다. 그

리하여 울진군 후포면 앞바다, 울진군 북면 앞바다, 울진군 원남면 앞바다 등에서 인민군의 화력을 무력화시키며 국군 제3사단의 작전을 지원하는 해상 함포 작전을 수행하였다.

다음 드헤이븐함은 9월 25일 작전명령 1-50에 따라 동해 제1지원선단에 소속되어 동해 안 41/50N이남의 해안 봉쇄, 해안 지역에서 아군 화력 지원, 그리고 해안지대의 인민군 병력, 철도, 교량, 기타 군사 목표물을 파괴하는 작전을 수행하였다. 드헤이븐함은 1950년 9월 26일 울진군 기성면 앞바다에서 해안 함포사격 작전을 수행하면서, 9월 27일까지 북위 37도 선에서 해상작전을 수행하였다.

울진군 주민들의 소개 및 피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미 해군의 인민군 대상 함포사격이 야간을 이용해 수행되면서 민간인 희생이 발생한 것이었다. 미 해군의 함포사격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자의 규모는 6명 사망으로 파악되었다. 희생자 6명은 연저리 2명, 읍내리 4명이었다. 모두 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연령은 영아부터 48세까지 다양하였다.

하지만 당시 민간인 희생을 불러일으킨 미 해군의 군사작전 관련 문서나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함포사격의 불법성을 규명하기에는 쉽지 않았다. 그에 따라 이 민간인 희생 사건은 진실과 화해위원회에 신청인 조서를 중심으로 조사 활동이 이루어졌다. 먼저,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2008년 3월 미국 순양함과 구축함의 작전일지와 미 태평양함대 사령부 중간평가보고, 관련 전황 및 해군 작전 자료 등에 대해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뒤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다.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미 해군 함대 중 가해 함대를 특정하기에는 자료나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쉽지 않았다.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는 불법성 관련 진실 규명은 명확히 하지 못했으나 전쟁피해에 따른 사망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에 따라 동 위원회는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위령 사업과 지원방안을 위한 법령 제정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73> 울진 미 해군 함포사격 민간인 희생 현장 지도

출처 : 『진실과화해위원회 보고서』

제3절 1950년대에서 4·19민주운동까지 울진

1. 1950년대 한국사회와 울진

1) 1950년대 각종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

1952년 4월 25일, 한국전쟁 중이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시·읍·면의원은 4월 25일, 도의원은 5월 10일에 실시하게 되어 있었다. 울진은 당시 강원도에 속해 있었는데, 미수복지 춘천·춘성·홍천 등 3개 시·군을 제외하고 선거가 실시되었기에 울진에서도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1952년 8월 5일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직접 제2대 대통령과 3대 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실시되었다. 대통령은 이승만(李承晩), 이시영(李始榮), 신흥우(申興雨), 조봉암(曹奉岩) 등 총 4명이 입후보하였고, 부통령에는 함태영(咸台永), 조병옥(趙炳玉), 전진한(錢鎭漢), 임영신(任永信), 이윤영(李允榮), 이갑성(李甲成), 백성욱(白性郁), 정기원(鄭基元) 등 총 8명이 입후보하였다.

1954년 5월 20일에 제3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결과 여당이었던 자유당이 56.2%에 해당하는 114명을 당선시켰으며, 민주국민당은 15명이 당선되었다. 울진에서는 전